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Difficulties in Parenting Influenced by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hild's Temperament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백은주
교수 강민정
교수 한선아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Mok Won University

Professor : Eun Joo Baik

Professor : Min Jung Kang

Professor : Sun Ah Ha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ifficulties in parenting influenced by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hild's temperament. This study used first-year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which was carried out under the R&D Center's child care policy.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3.0 program. First, the result is that the difficulties in parenting in terms of mother's sociology of population is more difficult when mother is early 30, low educational attainment and has no income and religion. Second, the result shows that relation between mother's characteristics or child's temperament and difficulties for parenting is affected by both depression, conflict of mother's characteristics and emotions of child's temperament. Thir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ffects to difficulties in parenting is in order of mother's depression, self-esteem, the method of bringing up, emotions of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s trouble.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 특성 (mother's characteristics), 자녀 기질 (child's temperament),
자녀 양육의 어려움 (difficulties in parenting)

I. 서론

근년 사회 이슈의 하나인 저 출산율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모색, 실행하고 있다. 이는 육아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취업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의 짐을 덜어서 출산이 장려되도록 하는 의도가 크다. 정부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대가 넘는 수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유로 결혼과 일의 양립을 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이와 같은 강구책은 저 출산 탈피에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와 출산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 둔 어머니, 심지어 취업모의 상당수가 어머니 자신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지원책을 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Baik, Han, & Kang, 2011)를 볼 때, 어머니를 대신할 지금과 같은 대리육아지원책만이나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책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육아지원책이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지금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공통된 인식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세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수 받을 수 없게 되어(Choi, Hukadani, & Lee, 2006) 이전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시기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때가 영아기이며 이러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Woo, Kim, Lee, & kim, 2009)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주체가 되어서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어려워하는 것은 핵가족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양육방법을 전수받을 기회가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의 범람이 오히려 어떤 내용을 내 자녀를 위한 육아 지식으로 취하여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Choi et al., 2006). 또한 소자화(少子化)로 인해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떤 때보다도 크고 이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Park, 2006).

우리나라 부모들은 경쟁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자각하는 상업적인 광고나 선전에 이끌리어 자녀교육을 내맡기는 경향이 크다(Woo, Baik, & Kim, 2005). 부모의 양육신념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행동 저변에 있으며, 이 양육신념은 부모가 속한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반영되어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자녀 양육의

성공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McGillicuddy-De Lisi, 1985). 따라서 육아관련 정보가 범람하는 이즈음에, 결국 선택하고 실행하는 육아의 주체인 어머니 자신이 스스로의 양육신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고, 이에 대해 확인·점검해 보는 것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로 생각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나 인식, 양육관 등을 포함한 양육신념을 깊이 성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Woo et al., 2009) 특정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치중되는 지금의 사회 현상에 무조건 편승하거나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저하시킬 수 있다(Ahn, 2000).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다양성은 자녀의 성별, 기질 등의 자녀 특성과 어머니의 성격 및 심리적 기능 등의 어머니 특성,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나 직업적 상황,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맥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Jung, 2008; Jung, Yoo, Auh, Jeon, & Park, 2003). 가령,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나 신경증적 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강한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낮고 부부갈등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배우자와의 관계와 같은 맥락적 특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온정적 양육행동보다는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Kim & Lee, 2004). 또한 우울 성향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부부관계 혹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이차적으로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가 영아의 울음 등 영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함을 밝힌 연구결과(Bettes, 1988)도 있다.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Lee, 2004). 즉, 자녀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활동적이며 반응적일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 발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된다(Colemann et al., 2002). 이러한 기질에 대해, 반응성이나 자기조절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한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반응성을 정서나 운동적 활동 등과 관련된 반응의 각성으로 보고, 조절능력을 반응성 정도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주의집중과 접근 및 회피, 그리고 자기 진정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녀의 기질을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관련지어 볼 때, 정서적인 반응성이 강한 까다로운 자녀는 정서적인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질과는 다소 다르지만 유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Kim, Hong, & Hong, 2010)에서 자녀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가족적, 정서적 자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녀의 기질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반응 혹은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07; Lamborn, Mount, Steinberg, & Dornbusch, 1991).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두 측면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하나의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데(Kwon, 2011; Son, 2011), 이는 여성이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 가능하도록 하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근년의 주된 접근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자신이 육아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Baik et al., 2011)을 고려하기에는 제한점을 안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어머니의 내적 변인이나 맥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 가족구조에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건강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 양육 어려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특성 및 자녀의 기질과 자녀 양육 어려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2008)에 참여한 가구의 어머니 2,0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몇 단계를 거쳐

선별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의료기관 중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 한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30개를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2차 추출단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표본으로 추출된 30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2008년 4월~7월 중 3개월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후 세 번째 단계에서 예비표본 가구 중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78명의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19세인 2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가구의 어머니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opulation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Category	N	%
Age (N = 2,075, M = 31.36, SD = 3.697)	20세~29 years	650	31.3
	30세~34 years	1,031	49.7
	35 years over	394	19.0
Academic ability (N = 2,062)	Under high school	643	31.2
	College	590	28.6
	University	714	34.6
	Graduate school	115	5.6
Income (N = 2,073)	Income	656	31.6
	Not income	1,417	68.4
Religion (N = 1,853)	Religion	930	53.4
	no religion	863	46.6

2. 주요 변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활용된 자료는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1차년도 데이터 중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이상의 변인에 대해 Shin, Ahn, Lee, Song과 Kim (2008)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Table 2와 같다.

1) 어머니의 특성

(1) 어머니의 양육 특성

어머니의 양육 특성 중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2007년에 개발된 NWECC(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총 6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1점)' 부터 '매우 원한다(4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은 어머니 자신이 자녀에게 수행하는

Table 2.
Measuring tools

Category	Variables	Measuring tools	Scale	Cronbach's α	
Mothe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Expectation of child	NWEC(2007)	4	0.676
		Style of parenting	PSQ Bomstein et al(1996)	5	0.820
		Knowledge of parenting	KIDI MacPhee(2002)	2	-
	Characteristics on psychological	Self-esteem	Scale of Self-esteem Rosenberg(1986)	4	0.739
		Depression	K6 Kessler et al(2002)	5	0.907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Scale of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Markman et al(1994)	5	0.906
Child's characteristics	Child's temperament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RKMSS Chung(2004)	5	0.914
		Emotional temperament	EAS Buss & Plomin(1984)	5	0.732
	Active temperament	EAS Buss & Plomin(1984)	5	0.694	
	Difficulties in parenting	Stress Test of Parenting Kim & Kang(1997)	5	0.840	

양육의 실재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Bomstein 외(1996)가 개발한 PSQ(Parental Style Questionnaire)도구의 총 17개 문항 중에서 영아의 부모 상황에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 유형'만을 발췌하여 총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지식은 KIDI(MacPhee, 2002)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의 합이 높으면 양육지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우울 검사는 Kessler 외(2002)가 개발한 도구 K6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상에 대해 '전혀 안 느낀다(1점)'부터 '항상 느낀다(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결혼만족도는 Chung(2004)가 개발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총 4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부부갈등 검사는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이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자녀 기질

자녀의 기질에 대한 검사는 Buss와 Plomin(1984)이 제작한 부모용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개 문항 중 정서성 관련 5개 문항과 활동성 관련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질문지를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측정하는 하는 형식으로 정서성 점수가 높으면 까다로운 기질이 많이 나타나며, 활동성 점수가 높으면 자녀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3)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검사는 Kim과 Kang(1997)이 제작한 도구의 34개 문항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프레스'와 관련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높음을 나타낸다.

3. 자료 분석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퍼센트,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별로 분석방법을 보면,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분산 분석 후 유의한 변인에 대하여 Scheffé 통계량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과 자녀 양육 어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있어서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평균 3.09($SD = 0.401$)점으로 4점 척도로 볼 때 어머니가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스타일 평균은 4.05($SD = 0.505$)점으로 5점 척도로 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식에 대한 평균은 8.76($SD = 2.078$)점으로 13점이 만점임을 감안한다면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보통 보다 높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6($SD = 0.342$)점으로 4점 척도로 볼 때 자아 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의 평균은 1.95($SD = 0.703$)점으로 우울정도는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갈등 평균은 1.99($SD = 0.768$)점으로 5점 척도로 볼 때 부부간의 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3.81($SD = 0.767$)점으로 4점 척도로 볼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녀특성에서 있어서 자녀 기질의 정서성의 평균은 2.71($SD = 0.612$)점으로, 5점 척도로 볼 때 아주 까다로운 편은 아니며, 자녀 기질의 활동성의 평균은 3.72($SD = 0.546$)점으로 비교적 활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 어려움의 평균은 2.74($SD = 0.619$)점으로 5점 척도로 볼 때,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
Table 4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자녀양육지식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자녀 기질의 정서성과 자녀 기질의 활동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식에서는 30~34세($M = 8.97, SD = 2.040$)과 35세 이상($M = 8.87, SD = 2.087$)이 20~29세($M = 8.37, SD = 2.080$)보다 자녀양육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결혼만족도에서는 20~29세($M = 3.87, SD = 0.786$)가 35세 이상($M = 3.71, SD = 0.785$)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자녀 기질의 정서성에서는 20~29세($M = 2.78, SD = 0.627$)와 30~34세($M = 2.72, SD = 0.598$)가 35세 이상($M = 2.59, SD = 0.60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녀 기질의 활동성에서는 20~29세($M = 3.80, SD = 0.551$)가 30~34세($M = 3.70, SD = 0.536$)와 35세 이상($M = 3.67, SD = 0.55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

Table 5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 자녀양육 스타일, 자녀양육지식, 자아존중감, 부부간의 갈등,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거는 기대에서는 대졸($M = 3.12, SD = 0.402$)이 고졸 이하($M = 3.07, SD = 0.407$)와 전문대졸($M = 3.07, SD = 0.390$)보다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자녀양육 스타일에서는 고졸 이하($M = 3.99, SD = 0.547$)가 대졸($M = 4.09, SD = 0.478$)과 대학원 졸업($M = 4.17, SD = 0.467$)보다 자녀양육 스타일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녀양육지식에서는 고졸 이하($M = 7.98, SD = 2.196$)는 전문대졸($M = 8.97, SD = 2.061$)과 대졸($M = 9.25, SD = 1.813$), 그리고 대학원 졸업($M = 9.30, SD = 1.682$)보다 자녀양육 지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아존중감에서는 대학원 졸업($M = 3.02, SD = 0.294$)이 대졸($M = 2.93, SD = 0.326$)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대졸은 전문대졸($M = 2.84, SD = 0.334$)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전문대졸은 고졸 이하($M = 2.78, SD = 0.348$)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부부간의 갈등에서는 고졸 이하($M = 2.11, SD = 0.808$)가 전문대졸($M = 1.93, SD = 0.717$)과 대졸($M = 1.95, SD = 0.758$), 그리고 대학원 졸업($M = 1.81, SD = 0.738$)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고졸 이하($M = 3.69, SD = 0.803$)가 전문대졸($M = 3.82, SD = 0.760$)과 대졸($M = 3.88, SD = 0.719$), 그리고 대학원 졸업($M = 4.03, SD = 0.748$)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Major Variables		N	M	SD	
Independent variables	Mother's characteristics	Expectation of child	1,863	3.09	0.401
		Style of parenting	1,863	4.05	0.505
		Knowledge of parenting	1,861	8.76	2.078
	Characteristics on psychological	Self-esteem	1,857	2.86	0.342
		Depression	1,853	1.95	0.703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1,858	1.99	0.768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1,858	3.81	0.767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2,076	2.71	0.612
		Active temperament	2,075	3.72	0.546
	Dependent variables		Difficulties in parenting	1,862	2.74

Table 4.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psychological trait on mothers and difficulties of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by their age (N = 2,078)

Category		N	M	SD	F	Scheffé post analysis	
Mother's characteristics	Expectation of child	20~29 years	597	3.07	.409	0.742	-
		30~34 years	915	3.10	.398		
		35 years over	349	3.09	.394		
	Style of parenting	20~29 years	597	4.04	.510	0.574	-
		30~34 years	915	4.05	.476		
		35 years over	349	4.07	.563		
	Knowledge of parenting	20~29 years	595	8.37	2.080	15.674***	①<②,③
		30~34 years	915	8.97	2.040		
		35 years over	349	8.87	2.087		
Self-esteem	20~29 years	596	2.86	.350	0.534	-	
	30~34 years	910	2.86	.335			
	35 years over	349	2.88	.345			
Depression	20~29 years	596	1.97	.768	1.534	-	
	30~34 years	907	1.96	.674			
	35 years over	348	1.89	.656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20~29 years	595	1.98	.796	0.043	-	
	30~34 years	912	1.99	.756			
	35 years over	349	2.00	.750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20~29 years	595	3.87	.786	4.980**	①>③	
	30~34 years	913	3.80	.745			
	35 years over	348	3.71	.785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20~29 years	650	2.78	.627	11.270***	①,②>③
		30~34 years	1030	2.72	.598		
		35 years over	394	2.59	.601		
	Active temperament	20~29 years	650	3.80	.551	8.876***	①>②,③
		30~34 years	1029	3.70	.536		
		35 years over	394	3.67	.552		
Difficulties in parenting	20~29 years	597	2.74	.645	2.057	-	
	30~34 years	914	2.76	.605			
	35 years over	349	2.68	.605			

Note. ① 20~29 years ② 30~34 years ③ 35 years over
** $p < .01$, *** $p < .001$

0.001). 자녀 양육 어려움에서는 고졸 이하($M = 2.83, SD = 0.630$)가 전문대 졸($M = 2.72, SD = 0.609$)과 대졸($M = 2.69, SD = 0.608$)보다 자녀양육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3) 어머니의 소득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 Table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소득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자녀양육 스타일, 자녀양육 지식, 자아존중감, 우울, 부부간의 갈등, 결혼만족도, 자녀

Table 5.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psychological trait on mothers and difficulties of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by their Academic background (N = 2,078)

Category		N	M	SD	F	Scheffé post analysis	
Mother's characteristics	Expectation of child	Under high school	586	3.07	.407	2.821*	①,②<③
		College	534	3.07	.390		
		University	625	3.12	.402		
		Graduate school	105	3.13	.404		
	Style of parenting	Under high school	586	3.99	.547	6.463***	①>③,④
		College	534	4.06	.483		
		University	625	4.09	.478		
		Graduate school	105	4.17	.467		
	Knowledge of parenting	Under high school	584	7.98	2.196	46.458***	①<②,③,④
		College	534	8.97	2.061		
		University	625	9.25	1.813		
		Graduate school	105	9.30	1.682		
	Self-esteem	Under high school	585	2.78	.348	28.345***	①<②<③<④
		College	533	2.84	.334		
		University	623	2.93	.326		
		Graduate school	105	3.02	.294		
Depression	Under high school	585	2.01	.765	2.591	-	
	College	530	1.93	.679			
	University	622	1.91	.671			
	Graduate school	105	1.88	.624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Under high school	585	2.11	.808	8.290***	①>②,③,④	
	College	533	1.93	.717			
	University	624	1.95	.758			
	Graduate school	105	1.81	.737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Under high school	585	3.69	.803	9.744***	①<②,③,④	
	College	533	3.82	.760			
	University	625	3.88	.719			
	Graduate school	104	4.03	.748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Under high school	643	2.75	.635	1.650	-
		College	590	2.69	.599		
		University	713	2.71	.594		
		Graduate school	115	2.66	.640		
	Active temperament	Under high school	643	3.71	.545	1.023	-
		College	589	3.74	.557		
		University	713	3.71	.540		
		Graduate school	115	3.78	.530		
Difficulties in parenting	Under high school	586	2.83	.630	6.309***	①>②,③	
	College	534	2.72	.609			
	University	625	2.69	.608			
	Graduate school	105	2.65	.613			

Note. ① Under high school ② College ③ University ④ Graduate school
** $p < .01$, *** $p < .001$

Table 6.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psychological trait on mothers and difficulties of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by their income (N = 2,078)

Category		N	M	SD	t	
Mother's characteristics	Expectation of child	not income	1,288	3.09	.409	-.170
		income	572	3.09	.381	
	Style of parenting	not income	1,288	4.07	.502	2.835*
		income	572	4.00	.507	
	Knowledge of parenting	not income	1,286	8.65	2.152	- 4.022***
		income	572	9.04	1.857	
	Self-esteem	not income	1,283	2.83	.345	- 6.139***
		income	572	2.93	.322	
	Depression	not income	1,279	1.99	.709	3.430**
		income	572	1.86	.682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not income	1,285	2.03	.774	2.855**	
	income	571	1.92	.752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not income	1,284	3.76	.782	- 3.749***	
	income	572	3.90	.725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not income	1,416	2.73	.614	1.585
		income	656	2.68	.607	
Active temperament	not income	1,415	3.70	.556	- 2.721**	
	income	656	3.77	.523		
Difficulties in parenting	not income	1,287	2.77	.614	2.925**	
	income	572	2.68	.62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psychological trait on mothers and difficulties of child's temperament and parenting by their religion (N = 2,078)

Category		N	M	SD	t	
Mother's characteristics	Expectation of child	no religion	863	3.09	.416	-.450
		religion	990	3.09	.386	
	Style of parenting	no religion	863	4.03	.489	-1.898
		religion	990	4.07	.516	
	Knowledge of parenting	no religion	863	8.74	2.101	-.517
		religion	988	8.79	2.064	
	Self-esteem	no religion	860	2.82	.329	- 4.869***
		religion	988	2.90	.347	
	Depression	no religion	859	1.95	.707	.068
		religion	985	1.95	.701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no religion	861	2.02	.767	1.553	
	religion	988	1.96	.768		
Satisfaction level of marriage	no religion	861	3.77	.770	- 2.297*	
	religion	988	3.85	.760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temperament	no religion	863	2.71	.605	-.634
		religion	989	2.73	.623	
Active temperament	no religion	863	3.70	.528	-.844	
	religion	988	3.72	.548		
Difficulties in parenting	no religion	862	2.79	.627	3.035**	
	religion	990	2.70	.611		

* $p < .05$, ** $p < .01$, *** $p < .001$

기질의 활동성, 자녀양육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스타일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M = 4.07, SD = 0.502$)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4.00, SD = 0.507$)보다 자녀양육 스타일이 더 긍정적인 것을 나타냈으며($p < 0.05$) 자녀양육 지식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8.66, SD = 2.152$)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9.04, SD = 1.857$)보다 자녀에 대한 양육지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아존중감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2.83, SD = 0.345$)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2.93, SD = 0.322$)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으며($p < 0.001$) 우울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1.99, SD = 0.709$)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1.86, SD = 0.682$)보다 우울감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부부간의 갈등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M = 2.03, SD = 0.774$)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1.92, SD = 0.752$)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만족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3.76, SD = 0.782$)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3.90, SD = 0.725$)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녀 기질의 활동성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3.70, SD = 0.556$)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3.77, SD = 0.523$)보다 자녀 기질의 활동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자녀양육 어려움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M = 2.77, SD =$

0.614)가 소득이 있는 경우($M = 2.68, SD = 0.626$)보다 자녀양육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어머니의 종교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차이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종교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자녀양육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M = 2.82, SD = 0.329$)가 종교가 있는 경우($M = 2.90, SD = 0.347$)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결혼만족도에서도 종교가 없는 경우($M = 3.77, SD = 0.770$)가 종교가 있는 경우($M = 3.85, SD = 0.760$)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자녀양육 어려움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M = 2.79, SD = 0.627$)가 종교가 있는 경우($M = 2.70, SD = 0.611$)보다 자녀양육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 자녀 기질과 자녀양육 어려움과의 관계

Table 8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기준으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특

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ild's temperament, and Difficulties in parenting (N = 2,078)

Category	Academic background			Age	Religion	Income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Child's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n psychologica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Expectation of child	Style of parenting	Knowledge of parenting	Emotion	Activity	Self-esteem	Depression	Conflicts	Satisfaction of marriage
Academic background	College	-.426**													
	University	-.490**													
	Age	-.029													
	Religion	-.069**													
	Income	-.223**													
	Expectation of child	-.039													
	Style of parenting	-.088**													
	Knowledge of parenting	-.259**													
	Emotion	.045*													
	Activity	-.012													
	Self-esteem	-.165**													
	Depression	.062**													
	Conflicts	.109**													
	Satisfaction of marriage	-.110**													
	Difficulties in parenting	.097**													

* $p < .05$, ** $p < .01$, *** $p < .001$

성 중 우울과 부부갈등, 자녀 기질 중 정서성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양육 특성 중 양육스타일과 양육지식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자녀 기질 중 자녀의 활동성이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자녀양육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 기질이 자녀 양육 어려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 기질에 따른 자녀 양육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VIF*(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6%로 나타났으며 종교($\beta = -2.283$)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종교가 없는 경우, 자녀양육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투입된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특성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8.8%로 모델 1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며 소득($\beta = -3.896$)과 자녀에게 거는 기대($\beta = 2.790$), 그리고 양육스타일($\beta = -19.517$)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소득이 없으며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양육 어려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양육스타일이며 그 다음으로 소득, 자녀에게 거는 기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1에서 영향을 미쳤던 종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투입된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42.3%로 모델 2에 비해 23.5%가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타일($\beta = -11.453$), 자아존중감($\beta = -10.698$), 우울감($\beta = 12.568$), 부부갈등($\beta = 4.12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어려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육스타일, 자아존중감, 부부갈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에서 영향을 미쳤던 소득과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모델 4에서는 모델 3에 투입된 변인과 자녀 특

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44.1%로 모델 3에 비해 1.8%가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타일($\beta = -10.846$), 자아존중감($\beta = -10.944$), 우울감($\beta = 11.675$), 부부갈등($\beta = 3.845$), 자녀기질의 정서성($\beta = 7.62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양육스타일, 자녀 기질의 정서성, 부부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기질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소득과 종교가 없는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소득 및 어머니의 연령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Lee, 2010)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의 M자형을 반영하듯 일과 육아의 양립 혹은 여타 과업 수행이 많은 인생주기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보다 더 효율적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둘째, 어머니의 특성 및 자녀 기질과 자녀 양육 어려움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과 부부갈등, 자녀 기질 중 정서성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양육특성 중 양육스타일과 양육지식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자녀 기질 중 활동성이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변화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동요가 적고 일관적이므로(Chung,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 행동에

Table 9.
Influence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difficulties in parenting (N = 2,078)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Population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High school	.125	.094	1.845	-.002	-.002	-.037	-.066	-.050	-1.242	-.067	-.051	-1.287
	College	.028	.021	.416	-.046	-.034	-.746	-.085	-.062	-1.637	-.082	-.060	-1.603
	University	.011	.008	.169	-.045	-.034	-.747	-.062	-.047	-1.220	-.066	-.050	-1.323
	Age	-.004	-.024	-1.003	-.003	-.021	-.980	-.002	-.015	-.807	.000	-.003	-.151
	Religion	-.066	-.054	-2.283*	-.049	-.040	-1.867	-.027	-.022	-1.206	-.032	-.026	-1.460
	Income	-.062	-.046	-1.916	-.115	-.086	-3.896***	-.028	-.021	-1.094	-.024	-.018	-.956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Expectation of child			.092	.060	2.790**	.051	.033	1.850	.047	.031	1.729	
	Style of parenting			-.514	-.420	-19.517***	-.277	-.227	-11.453***	-.263	-.215	-10.846***	
	Knowledge of parenting			-.009	-.031	-1.391	.002	.006	.311	.003	.009	.511	
Characteristics on psychological	Self - esteem						-.434	-.240	-10.698***	-.439	-.242	-10.944***	
	Depression						.247	.280	12.568***	.227	.258	11.675***	
	Satisfaction of marriage						-.028	-.035	-1.455	-.027	-.034	-1.414	
	Conflicts						.085	.106	4.120***	.079	.097	3.845***	
Child's temperament	Emotion									.142	.140	7.626***	
	Activity									-.010	-.009	-.486	
	F	4.805***			46.760***			102.039***			95.104***		
	R ² (adj R ²)	.016(.012)			.188(.184)			.423(.419)			.441(.436)		
	ΔR ²	-			.173			.235			.018		

*p < .05, **p < .01, ***p < .001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Shin & Hwang, 2008)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자녀 기질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의 활동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특성으로 이해된다(Coleman & Karraker, 2000)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영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육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 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을 나타내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자녀 기질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모델 4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양육스타일, 자녀 기질의 정서성, 부부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밀접한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Huth-Bocks & Hughes, 2008; Luster & Okagaki, 1993), 이는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나 신경증적

성향 같은 심리적 특성이 강한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부갈등 또한 보다 많으며, 이러한 배우자와의 관계 특성이 자녀양육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나(Kim & Lee, 2004),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며(Joun & Lee, 2009),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도록 하는 변인이라는 점(Lee & Chang, 2009)등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서적인 반응성이 까다로운 자녀에 있어서 정서적인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자아 조절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Routhbart & Derryberry, 1981)이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연구결과(Coplan, Bowker, & Cooper, 2003)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방향 수립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영아기 자녀의 부모여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결과를 영아기 이후의 자녀 연령대로 확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으로 수집한 까닭에 자녀 기질 등에 대한 응답은 실제 그 자체보다는 어머니 개개인의 인식에 보다 가깝다고 보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예비부모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어머니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양육 유형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어머니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부모들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정신건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양육 특성을 함양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성 강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국가 차원의 육아지원정책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이고도 기초적인 것으로서,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정확히 예측 및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교육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부모들의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는 보다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Ahn, J-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Baik, E-J., Han, S-A., & Kang, M-J. (2011). Study on utilization and preference type of childcare support service for inf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209-232.
- Bet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4), 299-319.
- Bom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et al.. (1996). Idea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oi, S-J., Hukadani, S., & Lee, K-H. (2006).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urturing anxiety structure-Parenting perception of Korean, Japanese, and Taiwanese mothers-.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11(1), 163-176.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 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 efficacy, belief,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oun, M-S., & Lee, Y-A. (2009). The effect of maternal stress on maternal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12(4), 97-116.
- Jung, C-Y. (2004).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mental retarded child mother's str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S., Yoo, G-S., Auh, J-K., Jeon, H-K., & Park, J-H. (2003). *Bumohak*. Seoul: Sinjung.
- Jung, Y-J. (2008).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3), 73-85.
- Kessler, R. C., Copel, L. J., Hiripi, E., Mroczk, D. K., Normand, S. T., Walter, E. E.,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K-H., & Kang, H-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A., & Lee, J-S. (2004).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characteristics,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145-166.
- Kim, S-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toward mother and self-esteem and peer statu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Kim, S-R., Hong, J-M., & Hong, H-K. (2007). The relationsd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s Media*, 9(2), 113-132.
- Kwon, M-K. (2010).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1st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p. 463-483.
- Lamborn, S. D., Mount,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e, G-S. (2010).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style of infant's mother. 1st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p. 103-124.
- Lee, J-Y., & Chang, M-K. (2009).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parent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9(2), 1-16.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101-12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cGillicuddy-De, L.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8: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Saitama, Japan: Author.
- Park, H. (2006).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parental role as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Lamb & A.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 37-86). Hillsdale, NJ: Erlbaum.
- Shin, N-R., Ahn, J-J., Lee, J-R., Song, S-Y., & Kim, Y-Y. (2008).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Research.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Shin, J-Y., & Hwang, H-W. (2008).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Youth Welfare*, 10(3), 101-122.
- Son, S-M. (2010).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1st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p. 439-462.

Woo, N-H., Baik, H-J., & Kim, H-S. (2005). The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preschoolers in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as perceived by private kindergarten headmaste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5(1), 5-24.

Woo, N-H., Kim, Y-S., Lee, E-J., & Kim, H-S. (2009). Examining mothers'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concern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nurturing in the low birthrate era. *The Journal of L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97-325.

접 수 일 : 2011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2일